

# 롯데기공 ‘아름다운 경영’ 실천

## 노인들 대상으로 무료급식활동 전개



롯데기공이 사회공헌 프로젝트 ‘아름다운 경영’ 관련 사랑의 밥차 봉사활동을 전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롯데기공이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밥차 봉사활동’은 효창공원 주변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식사를 공급하는 봉사활동이다.

용산구 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펼치게 되는 이 봉사활동은 매달 3째주 화요일에 무료 급식이 시행되며 지난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약 1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롯데기공은 매월 30만원씩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5명의 롯데직원들도 이 봉사활동에 참가중이다.

봉사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롯데기공 직원은 “외로운 어르신과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배식을 하고 후식을 지원할 때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며 “아름다운 경영

이란 모터아래 회사를 통해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지만 추후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해왔다.

지난 15일 열린 2차 봉사활동에는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노인들이 140여명에 달했다.

시립용산 노인종합복지관 김준기 봉사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펼치는 봉사활동이지만 대부분 거동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이 많다”며 “1차 봉사활동때 입소문을 들은 인근 노인들이 이번 행사에 대거 참석해 기쁘고 보람된다”고 말했다.

이외함께 “특별한 날에만 봉사활동을 펼치는 기업들과는 다르게 꾸준히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롯데기공을 보면 어려운 독거노인들이 꼭 혼자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고마움을 느낀다”고 덧붙였다.